

필요광장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호남 사람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역사란 참으로 엉뚱한 경우가 많다. 일제 식민지의 불행한 시대에 왜놈 헌병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독립투사들이나 고발하던 반역자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독립유공자로 변신한 뒤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혁혁한 업적과 지대한 공을 세웠지만 기록이 자세하지 못하고 자료가 보관되지 않아 역사에 전혀 이름을 전하지 못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고 마는 경우도 있다. 세상일은 언제나 그렇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보다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일이 너무도 많다.

역사적 사실을 점검하다 보면 ‘어찌 이렇게 엉터리로 역사가 전해지고 있는가’ 탄식을 금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바로 우리 호남 사람들이 정당하고 올바른 게 평가받지 못하는 인물들이 많다는 점

이다. 대표적으로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업적만큼의 공덕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분으로 네 어진 이들을 소개하고 싶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은 말할 것 없이 여러 관철자료에도 훌륭한 업적과 학문적 깊이가 대체로 열거되어 있지만, 임진왜란 때에 아들과 함께 전사하여 후손이 끊겼던 건재 김천일(金千鎰: 1537~1593) 선생이 있다. 선생의 학문과 사상에 관한 자료가 전해지지 않아 업적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 ‘건재집’(健齋集)이라는 선생의 문집은 매우 소략한 상태로 전해지고 많은 학술적 자료가 대부분 전란에 일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대한 의병장이며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장렬하게 순국한 애국자로만 알려진 채 학자이자 뛰어난 사상가였음은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학자나 사상가가 아니고는 사후에 나라에서 추증하는 시호에 문(文)이라는 글자를 넣을 수 없지만 김천일 장군은 일제 이항 선생의 수제자로 의병으로서의 역할도 위대하지만 학문과 사상도 탁월했기 때문에 ‘문열’(文烈)이라는 시호를 받아 천후에 빛날 업적을 추앙받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의병장이자 장군인 무

인(武人)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담양과 순천의 부사를 지낸 학자 관인이었음만 보아도 학문적 업적이 대단했는데, 전하지 않음은 가슴에 맺히는 일이다. 김천일 선생은 나주 출신이다.

또 다른 의병장 총장공 김덕령(金德齡: 1567~1596) 선생은 뛰어난 장군이고 애국자였지만 30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당해 학자로서의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계 성혼(成渾) 선생의 제자로 높은 학문과 사상을 가슴에 품고서도 발원할 기회도 없이 비참한 죽음을 당해 그런 업적을 전하지 못하고 말았다. 뒷날 신원되어 충장(忠壯)이라는 시호를 받아 충신으로는 혁혁한 이름을 날리게 되었으나 학문과 사상을 제대로 펴지 못했음은 또 하나의 우리의 슬픔이다. 광주의 총장으로 세운 무신(武臣)으로, 장군으로만 전해지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다. 백사 이

항복 선생의 제자로 높은 학문, 뛰어난 시인이었으나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고 무공(武功)만 전해지니 이 또한 답답한 일이다. 더구나 금남군은 군봉(君封)이지만 그분의 시호는 ‘충무공’(忠武公)인데 이순신 장군만 충무공으로 전해지는 것도 우리를 서럽게 한다. 광주의 금남군은 바로 그분의 군봉에서 따온 거리명이다.

고산 윤선도(尹善道: 1587~1671) 선생도 너무나 잘못 알려진 분이다. 해남 출신으로 불의와 부정에 눈감지 못해 20년 가까이 권력의 탄압으로 귀양살이를 하였고 광해군의 패정에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이이첨 등의 권력 농단에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하여 상소를 올린 직신자의 인이었다. 하지만 단지 ‘오우가’나 ‘어부사시사’를 지은 시인 목격으로만 알려진 것은 한탄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윤선도는 당대의 남인 4선생 중의 한 본인 탁월한 예학자(禮學者)로 송시열 등과 맞서 예학의 이론으로는 대표적인 학자였다. 뒤에 충헌(忠憲)이라는 시호가 내렸는데 이런 점은 알려고도 않은 채 시인으로만 여기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바로잡힐 것인가. 하루빨리 호남학 진흥원이 개원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법조칼럼

재판의 보람과 작은 소망



이정현
광주지법 부장판사

세상살이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따르기 마련이다. 뜻하지 않은 분쟁으로 심신이 피곤한데,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질 때가 많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러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마저 쉽지 않다.

겨울이 닥친 것이다. 추위만도 버거운데 배까지 고프다. 티끌만한 손해가 태산같이 커 보이고, 한 편의 이익을 위하여 어귀다툼을 벌이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보통 재판은 이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의 힘을 빌려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것이다. 종종 거짓을 고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분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늘의 법망은 크고 넓어 영성해 보이지만 놓치지 않는다 그랬던가? 설령 거짓 고함으로 판사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곧 새로운 분쟁이 시작되어 고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겨울을 나고 신록을 키워내듯이, 상

생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기를 잘 보내야 한다. 피하고 싶다고 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사의 고안은 여기서 시작된다. 어떻게 하면 재판을 잘해 힘겨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을까? 당사자들의 주장을 꼼꼼이 되새기고, 사건기록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방법을 찾는다.

우선 화해를 권한다. 화해를 통한 상생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겨울나기가 그리 쉽나? 쉽게 화해할 것 같았으면, 법원을 찾았겠나?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 지금의 손해가 미래의 복이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 온갖 설득에도 요지부동이다. 필자는 이럴 때 나뭇가지가 맨살을 드러내 채 북풍한설을 견디고 마침내 신록을 키워내는 자연의 섭리를 생각한다.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듯이 아픔 없이는 화해도 없는 법이다. 지금 처지가 비탄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그냥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처지가 낫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곧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판사도 불완전한 존재인지만 모든 진실을 한 치 어그러짐 없이 알아낼 수는 없

지만, 힘을 다하여 큰 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실관계를 밝혀낸다. 그 후 질질못을 판단해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양보하는 미덕을,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선 그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도록 권유한다. 잘잘못이 잘 가려지고 적절한 중재인이 만들어지면, 사람은 지혜롭고 합리적인지라 줄곧 화해하고 법정을 나신다. 겨울을 잘 견뎌내고 싹을 틔운 것이다. 이러한 때 나의 마음은 햇살에 반짝이는 신록을 볼 때처럼 달다.

그런데 늦은 밤까지 일해도 출지 않는 미제사건 수를 보면, 나라가 겨울에 있는 까닭에 백성들에게 봄이 오지 않은 것 같다. 곳곳에서 인심이 난다던가? 서민들의 곳곳이 텅 비게끔 국가가 운영된 데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갈무리하는 절차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화해와 상생이 가능하고, 그것이 자연의 섭리고 법의 정신이다. 우리 사회가 부디 지혜롭게 겨울을 잘 보내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미제사건이 줄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나도 마냥 신록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기고

100세 시대 또 다른 삶을 찾아서



임희진
화가

입하시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교훈을 주며 마음 또한 겸손하고 평안하게 해준다. 각각의 삶 속에 그동안 숨겨왔던 달려온 삶의 무게에 이제는 조금 쉬어서 될 법하건만 바쁜 일상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늘 갈망하며 겸손히 묵묵히 교육관에 다니신다. 평생 배움으로 채워가는 수강생들을 보며 나 또한 삶의 이정표가 생기곤 한다. 수강생들의 나이 즈음에 꼭 닮고 싶은 모습이다. 봄, 가을 학기 1년에 두 번의 학기로 교육과정이 짜여 있는 데 강의는 일반 대학처럼 15~16주 정도 편성돼 있다. 졸업이 없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다. 강의에서는 교육관 문턱이 높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만큼 배움에 목마른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수강 신청 공고나 나면 (나이 드신 분들을 배려해 일반 접수) 이른 새벽 출석기는 기본이요, 인터넷접속은 마비될 지경이고, 마감 또한 빛의 속도도 되기에 자식을 들이켜 손녀들도 신청기간만큼은 바쁘다 한다. 수강생들의 수업 분위기를 잠시 스케치해본다. K선생님은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시고 교육관에 다니시는 분이시다. 처음엔 K교장 선생님이 혼자 다니시다가 지금은 부부가 같이 교육관에 다니신다. 부부간에 공동된 취미를 갖고 계신다는 이유만으로도 수강생들의 버려줄 때에 받게 받고 있다. 또한, 70세에, 고회(古 회)를 함께 즐기며 같이 하시고 싶어 열심히 다

니신다.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오는 건지... 광양 포스코와 연관된 개인 사업을 하시는 A선생님은 중학교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인연으로 다시금 교육관 문을 찾은 지 1년 만에 두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림이기에 사업 스케줄이 너무 바빠 힘들던 텐데도 시간을 쪼개 단 삼십 분을 하더라도 이른 아침 교육관 서양화 강의실 문을 제일 먼저 열어주신다. 작품 또한 일취월장 하시고... 이번 학기에 처음 들어오신 신입 6명도 빼놓을 수 없다. 여고생 소녀 같은 선생님들이 어찌나 열심히 하시는지 지난 학기부터 배우신 L선생님 조금 불안해하실 정도다. 이곳이 나이 들어 손자, 손녀들 커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싶어 다니신다는 P선생님. 질병으로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 약을 달고 사시면서도 생애 마지막을 그림 그리면서 맞이하시고 싶다는 J선생님의 말씀은 가슴 시리다. 한동안 먹먹한 마음에 손조자 할 수가 없었고 겨우 마음을 추슬러 수업이 끝난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참을 읊었다. 이렇듯 제2의 삶을 위해 각각의 모든 수강생들이 본인의 목표에 행복을 더해 묵묵히

따뜻하고 인신 좋은 광양 교육관에서 한때 어울려 그림을 그린다. “만일 밀러의 비즈니스에 양말이다 있다

면 아마 루브르 미술관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말이 없는 쪽이 훨씬 아름답기 때문이다. 유럽 미술관에 종종 팔도 다리 없고, 목조자도 없는 몸통만 있는 토르소가 진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암시를 받는 근대의 조각가들은 처음부터 목, 팔, 다리가 없는 흉부 상만을 많이 조각했다. 이것은 이른바 부분이기 때문에 한층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치 회화의 경우에 일부분을 모사하다 보면 그 그림이 좋은 것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르소는 이른바 독립된 부분이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인체에서 받는 것보다도 느낌이 선명하다. 훨씬 더 확실하게 토르소에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본다. 완전함은 종종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더 좋은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의 환경에 머물러 여운을 잃게 되는데 이것은 자유로움이 제한되는 일이기도 하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샘플과 같아서 파헤쳐도 다 팔 수 없는 것으로 다시금 그 가운데서 솟아난다. 즉 한정되지 않는 자유가 남으면 이것이 미적(美的)감각을 한층 자극한다. 비껴 말하면 아름다운 물건이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야 상상으로 불러낸다. 보는 사람을 창작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이야말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리고 싶어진다.

社說

총리 인준 논란을 보는 호남의 엇갈린 시선

은 국민의 환호와 지지 속에 출발한 새 정부가 난관에 부딪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위장전입의혹 등 암초에 걸린 것이다.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의 양해를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의 5대 고위 공직자 배척 기준을 거론하며 이 총리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새 정부 조각(細閣)이 완료될 때까지 인사 청문회가 많이 남았는데 ‘위장전입’만으로 문제가 된 이가 벌써 세 명째다.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까지 논란이 되자 이제 이를 지켜보는 국민도 근근찮다.

특히 호남 총리 지명에 환호했던 호남 사람들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논란을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교사였던 부인이 좋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한 것이어서 분명 도덕성의 문제가 기만 간절히 바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잘한 일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정부가 부담하게 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2조679억 원이다. 우리 지역의 경우 광주는 658억 원, 전남은 911억 원으로 연간 1500억 원 가량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 왔다.

누리과정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취학 전 어린이들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용(월 25만 원)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도입한 일종의 교육복지 정책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내내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어 왔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교육청은 관계 법령을 들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부담하겠다고 버텼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만

있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위장전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래도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호남 사람들이 더욱 곤혹스러워하는 점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후보자가 과거 기자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대한 영도자’로 칭하는 기사를 썼다는 사실이다. 이 후보자는 1980년대 1500여 명의 언론인이 해직되는 중에도 전두환에 대해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총재’ 등의 칭송 기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십 년 전 햇볕아리 기자 시절 쓴 기사를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는 의견과 ‘김중민 전 의원은 전두환의 국보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을 받았는데 이 후보자의 경우 칭송 기사까지 쓴 것은 어찌 됐든 역사학의 결여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과연 논란을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논란이 되자 이제 이를 지켜보는 국민도 근근찮다.

특히 호남 총리 지명에 환호했던 호남 사람들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논란을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교사였던 부인이 좋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한 것이어서 분명 도덕성의 문제가

속을 태우는 일이 반복돼 왔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논란을 잠재운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재정적 숨통을 틔워 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시도 교육청은 나아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정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는 26일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유치원 예산도 국고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올해 기준)은 전국적으로는 1조3859억 원으로 광주가 749억 원, 전남이 497억 원이다.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 예산을 모두 부담하려면 연간 4조 원 안팎이 필요하다.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無等鼓

인간은 의외로 사소한 것에 감동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사소한 것과 나 사이의 동질감이라는 전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식사 후,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도되자 국민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는 테이크아웃 커피라는 매개를 통해 대통령과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회사원이나 서민들이 느끼는 동질감은 특권층이나 부유층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내가 매일 마시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대통령도 마시고 있다는 동일시 감정이 작용하는 탓이다.

대다수 회사원들은 하루 평균 한두 잔의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신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이들도 많다. 어쩌면 커피가 만든 모든 발명품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종이컵일 것이다. 종이컵은 물, 커피, 라면, 밥·국·국룰, 아이스크림 용기 등 안 쓰이는 곳이 없다.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종이

컵도 다른 발명품처럼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 종이컵은 미국의 ‘휴 무어’라는 사람이 발명했다. 1907년 허버드대에 입학한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가 종이컵을 발명한 것은 발명가였던 형과 관련이 있다. 그의 형은 생수 자동 판매기를 발명했는데, 거기에 큰 결점이 있었다. 생수 자판기에 사용된 컵이 도자기여서 쉽게 깨졌던 것이다. 형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깨지지 않는 종이컵을 개발한 것이다.

테이크아웃 커피

이렇게 시작된 종이컵의 역사는 자판기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로 옮겨갔다.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는 직장인과 노동자들의 일상을 점령한 지 오래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는 소탈하고 서민적인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내며 환호하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한 외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인사에 국민의 아목이 쏟아져 있다. 청와대 인사도 서민에게 기쁨을 주는 공평무사한 인사가 되기를 바란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